

월요광장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파르테는 신전이 있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Akropolis)는 그리스 여행자들이 꼭 방문하는 유적지다.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도시 가장 높은 곳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 지역인 아크로폴리스를 세우고 그 기슭에 시민의 광장인 아고라(Agora)를 두었다. 고대 그리스의 모든 도시국가는 제각기 크고 작은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를 갖고 있었다. '시장'이라는 뜻을 가진 아고라에서 그리스 시민은 총회 참석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거나 체육대회와 공연을 통해 스포츠와 예술의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생활의 이상으로 삼았다. 아테네 민주정이 시작된 곳도 바로 이 아고라였다. 그 결과, 오늘날에도 아고라는 사회의 공적인 의사 소통이나 직접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공간, 혹은 그러한 행위를 상징하는 말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아고라(Agora)와 지방정부 3.0

지난 7월18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를 연상케 하는 '시민 아고라 500 원탁회의'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시민 아고라'는 광주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시민이 논의하고 선택해, 시정에 반영하는 '광주형 지방자치 거버넌스 모델'이다. 이 행사에는 500명의 시민 토론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시민들이 제안한 정책 과제와 민선 6기를 맞는 광주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다른 지자체에도 시민참여 행정모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광주시의 '시민 아고라' 모델은 정책 제안자가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시민 개인으로 확대되고, 심사 과정에도 시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광역시의 '시민 아고라'는 지난해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 3.0 선도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정부 3.0이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핵심가치를 통해 국민행복과 창조경제 실현을 달성하는 것이라면 광주시의 '시민 아고라'는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정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

하며, 시민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소통하고, 채택된 정책의 성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새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 정부 3.0 정책은 이제 중앙부처를 넘어 일선시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 지자체 단위까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위한 수도권 중심의 집적 경제개발로 수도권에 인구와 부가 집중됨에 따라 지방이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공공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서비스의 격차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되는 정부 3.0 정책들은 이런 격차를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3.0은 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빅데이터 수준의 고급 정보를 어느 곳에서든 누구나 차별 없이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는 많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이전했거나 준비 중이다. 이런 공공기관들도 각기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자체적인 정부 3.0 실천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에 이전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부 3.0 사업을

선보이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지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조기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콘텐츠진흥원도 본원의 시설과 콘텐츠 관련 정보를 지역민들에게 적극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원 2층에 있는 콘텐츠 도서관을 개방하여 콘텐츠 관련 서적이나 AV 자료, 게임 타이틀 등 약 12만 4000여 권의 자료를 지역 주민들이 무료로 열람, 대출할 수 있게 하였다. 또 무대 시설을 갖춘 '빛가람홀'에서는 지역 주민 누구나 연주회·공연·전시 등 문화행사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콘텐츠 상영회, 강연회, 보드게임대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직접 마련해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기회도 많이 갖고자 한다. 지역 단위에서 정부 3.0의 실천은 주민들이 정보를 쉽게 얻고, 서로 소통과 협력하며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작은 아고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광주·전남 지역에 첫 발을 내디딘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콘텐츠를 중심으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작은 '아고라'를 온·오프라인에서 더 많이 만들고,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해가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社說

새누리당 호남 겨안기 이번엔 결실 거뭍야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에서 이정현 의원이 당선된 것을 계기로 새누리당이 '호남 끌어안기'에 시동을 걸었다.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곳에서 지역주의 타파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당 차원에서 호남 민심에 적극 다가가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4일 광양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최고위 관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장 최고위 관료의 의견을 열어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김무성 대표 취임 이후 호남에서는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앞다퉈 호남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대표는 "순천과 곡성 유권자 여러분께 새누리당 정치의 바꾸는 위대한 정치혁명을 이뤄 냈다"면서 "선거기간 약속한 예산폭탄이 불발탄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오는 25일 전남도청에서 예산 당정회의를 열어 호남 예산을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영남당'으로서 호남에 소홀

교황이 남긴 메시지는 '공동선의 추구'다

'기난하고 약한 자의 친구'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늘 오후 떠난다. 지난 14일 한국에 도착한 이후 줄곧 그가 던진 메시지의 울림은 결코 작지 않았다. 그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줄인다면 '공동선의 추구'라 하겠다. 우선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고 위로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16일 광화문 시복 미사 페이드 중 노란 리본을 달고 나온 교황은 유족의 손을 직접 잡아 주었다. 낮은 데로 임해 아프고 상처받은 영혼을 어루만져 준 것이다. 교황이 특별하게 세월호 유가족에 대해 신경을 쓴 것은 우리 사회에 보내는 중요한 질책일 수도 있다. 특별법 협상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하게 사회적 합의를 찾으라는 '말 없는 중용'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동 연설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공동선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체류 내내 소탈한 모습으로 일관한 교황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했다. '소박하게 생활하고, 물질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큰 가르침을 주었다. 공포롭게도 때때로 고풍비리의혹에 연루된 여야 국회의원들의 스캔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여준 교황의 겸손한 행보는 더욱 의미가 컸다. 물론 성직자의 높은 뜻과 현실 정치의 리더십에는 다소 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문제를 풀이하고 공동체의 행복을 위한다는 점에서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은 교황의 행보에 담긴 숨은 뜻을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25년 만에 이뤄진 교황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무엇보다도 화합과 소통을 위한 정치권의 변화가 있어야겠다. 아울러 우리 모두 정파와 종파 그리고 지역과 빈부를 떠나 상대를 배려하는 작은 선행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천관영 광주지검 검사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에 대해

하지만 올해 광주지검 관내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 광산구 헬기 추락 사고 등 몇 년에 한번 발생할까말까 하는 대형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세월호 침몰사고는 수백명의 어린 생명들이 유명을 달리 했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도 전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을 만큼 피해가 너무나도 컸다. 아직도 사건 발생일인 2014년 4월 16일 아침을 기억한다. 광주지검 안전사고 전담파사로서 부장님의 지시로 해남지청에 급파되어 사건 수습을 돕다가 오후에 사건 관할이 목포지청으로 이관되었다는 말을 듣고 목포지청으로 이동할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구조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목포지청에 도착하고 나서, 학생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들이 침몰하는 배 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비보를 들었다. 정말로 눈앞이 깜깜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에 눈시울만 자꾸 뜨거워졌다. 그 뒤로 50일간 목포지청에서 선장을

비탄한 선원들 및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정말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느끼게 되었다. 470명이나 되는 사람이 타고 있는 배에, 오로지 돈을 더 벌기 위해 그렇게 많은 자동차와 화물을 실으면서도 그에 대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 의식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배가 옆으로 넘어져 결국 침몰하는 말도 안되는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다. 선장은 말할 것도 없고 선원들, 회사 관계자조차 평소 '설마 무슨 일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만연히 화물을 계속 더 실기에 바빴다. 하긴 나조차도 몇 년 전 페리선을 타면서 자동차도 함께 배에 실었던 경험 이 있었는데, 갑판 위에 내 자동차를 단순히 주차만 하고 묵지 않은 것을 보고도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던 기억이 난다. 자동차를 묶어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배라는 것은 파도가 쳐 잠시 기울었다가도 원래 상태로 금방 돌아오고, 또한 자동차가 한쪽으로 쏠릴 정도로 많이 기울어 있는 것은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세월호 사건 이후로 연안 여객선의 화물과 자동차를 철저히 고박하고 있다고 들었다. 진작에 그랬어야 한다. 그 결과 화물과 자동차의 적재 및 하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까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가까이 노력과 비용을 들인다는 의식이 필요하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니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여 주십시오'라는 멘트가 새삼스럽게 귀에 들어와, 택시에서 처음으로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 보았다. 역시나 어색하고 불편했다. 하지만 나부터도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노력을 쌓아 가면 어느새 우리 사회는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 있지 않을까.

기고



심명섭 전남대도서관 학술정보지원과장·행정책학 박사

저기 사람이 있는데...

3323명이 참여한 한책 선정 투표에서 올해의 한책에는 공지영 작가의 '높고 푸른 사다리'가 선정되었다. 이 책은 요한 수사넬이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겪은 신과 이성에 대한 사랑의 갈등, 높고 지고지순한 성직자들의 삶, 그리고 이들이 한국에서 겪었던 믿지 않는 고통을 씨줄과 날줄로 엮고 있다. 이 중 마지막 부분은 한국전쟁 중 흥남철수 과정을 생생히 담고 있는 역사적 실화다. 당시 흥남부두는 미군과 한국군 10만 5000명과 피난민 9만명으로 발디딜틈 없이 혼잡한 상태였다. 미군은 자신을 위주로 철수하는 반면 피난민들은 중공군과 미군의 중간지점 즉 폭격지점에 있어서 거의 몰살지경에 이르는 위급한 상황이었다. 미국 군함과 전투기가 중공군에 폭격을 가하는 동안 군함과 상선 약 200여척이 흥남 철수 작전에 동원됐다. 그때 미국의 한 상선 'SS Meredith Victory' (메리디스 빅토리) 호라는 화물선이 있었는데 승선할 수 있는 정원은 60명이었다. 이미 선원 47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자리는 13석 뿐이었다. 당시 선원들은 '이런 상황에서 피난민들을 태운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까지 위협한다'고 하면서 전원이

반대를 한다. 이 때 라루(Leonard P. LaRue)선장은 한참동안 침묵으로 있다가 "저기 사람이 있는데..."라고 짧게 말한다. "저기 사람이 있는데..." 그러자 선원들은 화물을 운반하던 그 물량을 배의 측면으로 내렸다. 그것은 푸른 바다위에 펼쳐진 높은 사다리가 되어 피난민들은 그 사다리를 이용하여 배에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강풍이 불고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흑여나 도중에 그물에서 떨어지면 영락없이 바다 속으로 수장되는 상황이었다. 부두에 몰려든 수많은 피난민들을 배에 태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이미 흥남시는 폭격으로 화염에 싸여 있었고, 적의 공습은 흥남부두를 향해 있었기 때문이다. 1950년 12월 20일 9시경에 시작된 승선은 밤새도록 진행되어 다음날 정오까지 진행되었다. 총 1만4000명의 피난민들이 승선하였고, 그 중에 만삭이 가까운 임신부가 5명 있었다. 이렇게 해서 12월 24일 부산항에 도착했지만 이미 피난민으로 가득 찼다는 이유로 임박이 거절됐다. 라루 선장은 할 수 없이 50마일을 더 항해해서 크리스마스인 25일 거제도 장승포항에 피난민을 내려놓았다. 목숨

을 걸고 기러가 곳곳에 묻혀 있는 바다를 1만4000명을 태운배가 아슬아슬하게 항해를 했지만 신기하게도 사흘간의 항해 동안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히려 5명이 더 늘었다. 항해 도중 아기 5명이 태어난 것이다. 결국 1만4005명의 피난민을 구할 수 있었고, 이 숫자는 현재까지 인류 역사에서 한꺼번에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사건으로 기네스북에도 등재되었다. 이 화물선의 라루 선장은 이들간에 걸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1만4005명 모두 다 하선시킨 다음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다. 그리고 "바다에 나가는 사람이 배우는 첫 번째 교훈 중 하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미는 것이다. 배의 안전과 배가 나르는 모든 것의 안전은 바로 이 교훈에 따른 것이다" 라고 말한 후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책을 통해서 메말라 가는 현실에서 지긋지긋한 피난의 와중에서도 서로를 보살피고, 질서를 지켜주며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를 배려하는 그 모습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 비극의 역사 속에 있었던 잊혀진 현실 이야기, 올 여름은 한책을 읽으면서 무더위를 잊으셨으면 한다.

無等鼓

순교(敎)나, 배교(背敎)나. 막부 관리는 로드리고 신부에게 신앙을 버릴 것을 종용한다. 배교하면 구덩이에 거꾸로 매달린 채 죽어가는 농민 신도들을 살려주겠다고 회유한다. 신부는 감옥 속에서 "주여, 당신은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라고 중얼거린다. 괴로워하던 신부는 그만 성화(聖畵)를 맨발로 밟고 만다. 이때 동간에 새겨진 그 분이 신부에게 말한다. "뱀아도 좋다. 나는 너희에게 밝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너희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 것이다." 일본작가 엔도 슈야쿠(Endo Shuaku)가 1966년 발표한 장편 소설 '침묵'에 나오는 일화다. '침묵'은 17세기 당시 일본 기독교 박해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린 소설. 저자는 나가사키에서 거무스름한 발가락 자국이 남아 있는 넬만(성화)을 본 후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계기로 교고 시절 읽었던 이 소설이 문득 떠올라 다시 손에 들었다. 조선 후기의 천주교 역사는 선교사들을 통해 전해지지 않고 자생적으로 이뤄졌다. 네 차례에 걸친 박해를 받으며 1만여 명의 신도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송기동사회2부장 song@

교황의 손길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6일 100만 명의 신도들이 운집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미사에서 장성 출신 김조이·이봉금 모녀를 비롯한 순교자 124위에 대해 시복(諡福) 선언을 했다. 교황은 '세월호' 유가족과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잡아 주기도 했다.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는 장애 아동들의 공연을 선 채로 관람했다. 정말 '소탈한' 행보였다. 그렇게 낮은 데로 임한 교황이 오늘 한국을 떠난다. 이번 교황의 방한은 정치적 이념논쟁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화해와 평등의 가치를 새삼 일깨워 주었다. /송기동사회2부장 song@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 F A X 222-8005 > < F A X 222-0195 >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 F A X 227-9500 >
 (대표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 젝 트 팀 2200-555 < F A X 02-773-9335 >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